

##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(11.27)

-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.
  -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되면,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-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디지털·친환경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.
-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 
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.
  - 그러나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,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.
-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“서포터”가 아닌,  
기업과 함께 달리는 “플레이어”가 되겠습니다.
  -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.
- 첫째,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습니다.
  -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
  -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(tool)을 뛰어넘어,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
- 둘째,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습니다.
  -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상 인센티브 축소를,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
  -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여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‘빠르고 정확하게’ 전달하고,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- 셋째,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를 치우겠습니다.
  -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겠습니다.
  -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‘문제해결’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.
- 이 외에도, 노후화된 산업인프라를 현대화하고,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기반도 든든하게 확충하겠습니다.
-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,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“골든타임”입니다.
  - 이에 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”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.

#### [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]

- 오늘 회의는 ‘반도체산업협회’ 현장에서 개최합니다.
-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
  -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함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금일 회의 종료 직후,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\*을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.

\* (전력) 총 4.3조원(국가산단 3단계 제외), (용수) 총 2.2조원, (도로) 총 0.9조원

○ 국회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습니다.

- 약 1.8조원에 달하는 용인·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.

-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.

□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.

○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R&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,

○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\*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.

\* 현행 공제율 : 대·중견기업 15%, 중소기업 20%

### [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 ]

□ 'AI 3대 강국'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.

○ 향후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AI 경쟁력은 곧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합니다.

○ 이에, '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·관 합작 투자로 「국가 AI 컴퓨팅센터」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특히, '25년에는 국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천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(GPU 포함) 투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○ AI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여 세제지원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.

- ☐ 앞으로도 더욱 더 다양한 업계와 소통하며  
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,  
업종별 대응전략을 적기 마련하여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장관, 과기부 장관이  
말씀드리겠습니다. (산업부 장관, 과기부 장관 모두발언)
- 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